



부산지역본부



부산지역본부

부산지사	부산지사봉사단
중부산지사	중부산연금사랑 봉사단
서부산지사	서부산봉사단
북부산지사	사랑 나눔회
동래지사	동래 나눔미
남부산지사	우리사랑회
남울산지사	Green Town
동울산지사	연금이 봉사단
창원지사	성산봉사단
마산지사	나눔미
김해지사	행복나눔미
통영지사	통영지사 봉사단
진주지사	해사랑
거창지사	국민연금봉사단
양산지사	양산대들보
부산콜센터	더불어 사는 사람들



부산지역본부

부산지사봉사단 _ 부산지사

주요활동

-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
-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이웃 후원
- 1사1촌 농촌 사랑 운동 등



중부산연금사랑 봉사단 _ 중부산지사

주요활동

- 거동불편 노인 동반 점심 식사, 산책 보조 및 말벗 봉사활동
- 저소득 모자가정 후원
- 사회복지시설 후원 등



지역 속에서 소중한 마음을 나누는 부산지사봉사단

'부산지사봉사단'은 「연제구종합사회복지관」에 등록된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006년 6월부터 현재까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사랑의 도시락 배달 봉사를 펼침으로써 삶의 보람과 정서적 만족 등을 체험하고 있다.

명절 또는 연말연시에는 관할지역 동사무소와 사회복지관 등에서 추천한 독거노인, 유소년가장 등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불우이웃 돕기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09년에는 관할구청을 통해 소년소녀가장을 추천받아 대상자를 선정하고, 매월 장학금을 지급하여 미래 연금고객에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2009년 6월에는 1사1촌 자매결연 마을인 밀양시 평리마을을 방문하여 매일 수확 작업 등 일손을 돕고 교류를 지속함으로써 서로 간의 우의를 다졌다.

특히 2009년 8월에는 경남 통영시 산양읍 '저도'와 '부산지역본부' 간의 1사1촌 자매결연식에 지역본부지사로서 참여하였다. 9월에는 저도 일원에서 섬해안정화 활동, 어르신 가구 청소 및 이불 빨래, 비거주 주택 정비 등의 봉사활동으로 생활여건이 낙후된 어촌마을에 사랑 나눔을 실천하였다.

부산지사봉사단은 매주 실시하는 봉사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거동불편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되어

중부산지사 '중부산연금사랑 봉사단'은 2005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영도구에 소재하는 노인요양시설인 「파랑새노인건강센터」의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쳐 왔다.

매월 중순이면 「파랑새노인건강센터」의 담당자와 봉사일정을 정하고 지사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한 뒤, 봉사하는 날에는 자원봉사자로 나선 단원들이 건강센터를 방문하여 어르신들을 밖으로 모시고 나온다.

모시고 나온 어르신들이 점심 식사를 할 때면 봉사단원들은 내 부모님 모시듯 곁에 앉아 한 수저 한 수저 식사를 돕는다. 식사 후에는 휠체어를 이끌면서 어르신들의 정다운 말벗이 되어 여기저기 산책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지사 여건상 봉사활동을 못하고 한 달 거른 다음 달에 노인건강센터를 찾게 되면 "어르신들이 아침부터 점심 나들이를 기대하며 기다리신다. 자체 봉사활동 프로그램은 제일"이라며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해 달라고 당부하는 센터 담당자의 말씀은 다시 찾은 단원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준다.

중부산연금사랑 봉사단원들은 이러한 봉사활동을 통해 사랑과 나눔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손발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주요활동

- 도시락 배달 자원봉사 활동
- 사회복지시설 후원 등



도시락으로 전하는 사랑 릴레이

서부산지사 '서부산봉사단'은 2008년 2월에 관내에 있는 「구평종합사회복지관」과 협약식을 갖고 매월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다. 주된 봉사활동은 넷째 주 화요일에 실시하는 도시락 배달 봉사로서 관내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도시락을 기다리는 독거노인과 장애인들은 대개 거동이 불편하여 평소에 다른 사람들과 교류가 없는 분이 대부분이어서 도시락을 전해 받는 것보다도 움츠러든 마음을 열어 줄 말동무를 더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서부산봉사단은 사랑을 듬뿍 담은 도시락을 전하면서도 항상 그간의 건강상태를 살피고 생활의 어려움을 물으며 짧은 시간이나마 말벗이 되어 즐거운 식사를 돕고 있다.

한편 2009년 4월에는 복지관이 주최한 관내 독거노인 대상 '경로관광행사'를 후원하여 어르신들의 외로운 마음을 위로하고 공경과 감사의 시간을 가졌다.

서부산지사 봉사단은 앞으로도 소외된 어려운 이웃에게 밝고 맑은 세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부산지역본부

사랑 나눔회 _ 북부산지사

주요활동

- 중증치매환자 점심식사 도우미 활동
- 재가어르신 온천욕 체험행사
- 조손가정, 독거노인 등 후원 및 봉사
- 저소득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 저소득 연금수급자 후원 등



동래 나누미 _ 동래지사

주요활동

- 독거노인 대상 도시락 배달
- 저소득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 소년소녀가장 후원 등



재가 어르신과 함께한 '행복한 동행'

북부산지사 봉사단 '사랑 나눔회'는 소외받는 이웃과 함께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부산시 북구 관내 「장선종합복지공동체」와 협약을 맺고 「장선노인복지대학」 정기 강의, 「무지개연덕노인전문요양병원」 중증치매환자 점심식사 도우미 활동과 「샘터장애어린이집」 후원 등 다양한 활동으로 끈끈한 결연관계를 맺어오고 있다.

특히 재가 어르신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온천욕임을 알고 매년 어버이날을 전후하여 온천욕 체험행사인 '행복한 동행'을 3년째 수행하고 있다. 온천욕 체험행사는 재가어르신 40여 분이 참여하는데 온천욕을 함께하면서 어르신들의 등을 밀어 드리기도 하고 인근 유명관광지를 모시고 다니며 자식들처럼 효행을 실천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다.

또한 사랑 나눔회에서는 사랑의 연탄 배달, 유족연금수급자 자녀에게 교복 맞춰주기, 따뜻한 겨울을 지내기 위한 이불 전달, 사진동호회의 지원을 받은 가족사진 촬영, 국민연금 가입자이면서 기초수급자인 가정에 명절 맞이 생필품 전달 등 불우이웃과 훈훈한 정을 나누고 있다.

2009년 4월부터는 덕천주민센터와 연계하여 독거노인과 조손가정 10세대에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공으로 만든 웰빙 두부 1모와 요구르트 5개를, 구포1동주민센터와 연계하여 독거노인 5세대에는 매월 1회 쌀 10kg과 재래시장 상품권 1매(1만원)를 전달하여 사회복지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아울러 대외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작은 나눔! 큰 행복!

동래지사 봉사단 '동래 나누미'는 2005년 발족 이후부터 2008년까지 지역 봉사활동단체 '바라밀회'와 연대하여 공원에 모이신 어르신들에게 배식봉사를 해오다 2009년부터는 도움이 더 절실히 필요한 곳을 찾다가 「동래종합사회복지관」을 만나게 되었고, 복지관과 협력하여 거동이 불편하신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도시락 배달을 시작했다.

봉사단원들은 도시락 배달이 목적이라는 하지만 혹시 불편한 점이 없으신지, 건강은 이상이 없으신지 살피며 언제든지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준비된 자세로 한 집 한 집 방문하고 있다.

또한 동래 나누미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매월 후원금을 지원해 오며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동래 나누미의 시작은 크지 않지만,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 나설 것이다.

주요활동

- 장애우시설 정기 후원 및 봉사활동
- 저소득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



장애우의 작은 꿈과 소망을 함께 키워가는 '우리 사랑회'

꿈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성프란치스코의 집」은 지체장애, 지적장애 등 중·복장애를 가진 생활인들에게 일상생활지도, 물리치료, 언어치료, 직업치료 등 재활치료를 수행하며, 자원봉사자들과의 야외학습 및 놀이를 통하여 사회재활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2006년 8월 후원대상자를 찾고 있던 남부산지사 '우리사랑회'는 인근 주민자치센터의 추천으로 「성프란치스코의 집」과의 인연을 맺었다. 매월 정기 후원금 지원으로 시작된 인연 만들기는 2007년부터 생활지원, 노력봉사 등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더욱 두터워져 갔다. 한여름의 뜨거운 햇살도 혹한의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매월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전 봉사단원들은 작은 정성을 모아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사랑회는 장애우시설에 대한 정기후원과 봉사활동을 통해 '자원봉사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 또는 시간과 물질적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하는 특별한 활동이 아니며 누구라도,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시작할 수 있는 활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보람과 긍지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부산지역본부

Green Town _ 남울산지사

주요활동

- 관내 공공시설물 환경정비, 정화활동
- 장애인성폭력상담소와 파트너십 봉사 활동
- 저소득 연금수급자 후원 등



연금이 봉사단 _ 동울산지사

주요활동

- 사회공헌교류협약(MOU)을 통한 이웃사랑 나눔행사 실천
- 저소득 연금수급자 후원
- 저소득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



Ecopolis 울산, 앞장서는 국민연금

공해도시란 오명을 벗고 환경도시, 생태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울산광역시 브랜드「Ecopolis」에 맞추어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출범한 남울산지사 사회공헌단 Green Town!, 'Green Town' 봉사단은 전 단원의 뜨거운 열정과 참여 아래 연간 7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울산대공원, 아음수변공원, 문수산 주요 등산로 등 공공시설물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환경정비와 정화활동, 현장홍보 등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단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더불어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소」와 자매결연 협약식을 갖고 다양한 파트너십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상처를 입은 성폭력피해자들이 다시 건강하게 사회로 돌아오는 과정을 지원하고자 1대1 멘토링을 기반으로 야외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여직원동호회를 통해 클레이아트를 매월 2회 이상 실시, 프로그램화하여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현실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언가 나눠주려 갔다가 열 배 이상 배워온다는 봉사단원들은 개인적으로도 참된 시간일뿐더러 공단 직원으로서도 소속감이 높아지고 응집력 강화에 최고라며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사회공헌교류협약을 통한 끝없는 이웃사랑

2005. 9월 출범한 동울산지사 '연금이 봉사단'은 월 1회 이상의 자원봉사활동을 목표로 전 직원이 봉사단원이 되어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된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에 나서고 있다.

동울산지사 연금이 봉사단의 주요 활동은 유족연금수급자 중 저소득자에 대한 정기 후원,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사회복지법인 열린교실어린이집」의 지체장애아동에 대한 야외학습 봉사인력 파견,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도시락 배달 파트너십 활동, 「예수성심수녀회요셉의집」 무료급식소 자원봉사 등이다. 그 밖에 사회복지시설 물품 후원, 행사 지원 등 수시로 맞춤형 사회공헌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동울산지사 연금이 봉사단은 규모가 작고 적은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단원들의 헌신적인 이웃사랑 실천으로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 정착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노력이 인정되어 2008년 12월에는 울산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 사람들」로부터 '함께하는 봉사상'을, 2009년 4월에는 울산광역시의회의장으로부터 사회공헌단체상을 수상하였다.

성산봉사단 _ 창원지사

주요활동

- 장애우 재활 작업활동 보조
- 저소득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 두레장품 등 사회복지시설 후원



나누미 _ 마산지사

주요활동

- 무료급식소 배식 및 설거지 봉사
-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 저소득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 사회복지시설 및 불우이웃 후원 등



하나된 우리! 나눔도 기쁨도 두 배

창원지사 '성산봉사단'은 창원시 도계동 (사)창원시장장애인부모회 소속 「두레풍장」과 2005년 11월 자매결연 협약식을 맺고 현재까지 매월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신지체장애인 작업 활동시설 「두레풍장」에는 남·녀 정신지체장애인 20여 명이 작업 활동을 하고 있다. 성산봉사단은 이 곳 「두레풍장」에서 2005년부터 장애우의 재활 작업활동 보조와 나들이 행사지원, 후원금 지원 등의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왔고 2007년 11월에는 (사)창원시장장애인부모회로부터 감사장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성산봉사단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진해시장장애인복지관」에 매월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지사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도 생활비 지원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2009년 2월에는 창녕 화왕산 참사로 인해 고통을 겪은 지역주민을 위해 성금을 기탁하기도 하였다.

봉사단 단원들은 “평소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해 큰 관심 없이 지내다 함께 일하다 보면 그들도 우리와 같이 똑같은 사람이고 전혀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어 보람이 있다” 며 자신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된다고 한다.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작은 힘!

마산지사 '나누미' 봉사단은 매주 금요일마다 무료급식소 「한마음의 집」을 방문하여 배식 및 설거지, 도시락 배달과 수거, 주변 청소 등의 봉사활동과 무료 급식에 필요한 쌀 등을 지원하고 있다.

주말에는 「빛누리 집」을 방문하여 잡초제거 및 창틀 청소 등 시설의 실내외 청소를 돕고, 농번기에는 인근 농촌지역을 방문하여 양파 수확을 돕는 등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나누미 봉사단 단원들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월 급여에서 십시일반 공제하여 모은 사회공헌후원금을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있다.

봉사단원들은 “늘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바쁜 업무로 자주 찾아가지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짧은 시간이나마 우리의 봉사활동이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의 숨은 일꾼으로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부산지역본부

행복나눔미 _ 김해지사

주요활동

- 사회복지시설 등 후원
- 구산종합사회복지관 점심 배식, 도시락
- 배달 등 봉사활동
- 유족연금수급자 자녀 장학금 지원
- 저소득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통영지사 봉사단 _ 통영지사

주요활동

- 1사1촌 자매결연 농촌사랑 운동
- 저소득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 사회복지시설, 불우 이웃 등 후원



사랑의 배식, 구산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의 행복 나눔

김해지사 '행복나눔미' 봉사단은 2006년 5월에 발족하여 국민의 사랑을 먹고 사는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러운 이웃을 돕기 위한 정기적인 후원 활동으로 소년소녀가장 돕기,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쌀 지원, 저소득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유족연금수급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또한 행복나눔미는 후원금 지원 등 단순 기부활동에만 그치지 않고 「구산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매월 2회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참여하고자 하는 봉사단원이 많아 조를 나누어 서너 명이 매번 돌아가면서 쌀을 짚어지고 복지관을 방문하게 되는데 점심시간에 차와 음식을 배식하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드실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설거지, 청소 등은 물론이고 거동이 불편하여 복지관으로 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하여 직접 도시락을 배달하는 노력봉사까지 펼친다.

한편, 봉사활동을 펼치던 중에 눈썰미 좋은 직원이 청소기가 많이 낡은 것을 발견하고는 따로 새 청소기를 기부하기도 하였는데 상주하여 봉사활동을 펼치시는 분들이 '새 청소기를 이용해 편하게 청소를 하게 될 때마다 국민연금을 떠올리게 된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도 하셨다.

특히 행복나눔미는 「구산동종합사회복지관」과 끈끈한 연을 이어가면서 그곳에서 주최하는 '추석맞이 명절 음식 나누기' 등의 행사에도 참여 했다. 이 행사는 인근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100여 명에게 이웃과 함께 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명절 음식인 튀김과 전, 과일, 송편 등을 포장하여 나누어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활동들은 종종 언론들의 관심을 끌기도 해 국민연금의 홍보 효과까지 누릴 수 있었다.

앞으로도 김해지사 행복나눔미는 사회복지기관과의 유대를 더욱 강화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농도상생(農都相生)의 정신으로...

'통영지사 봉사단'은 2008년부터 발족하여 같은 해 9월 관내 고성군 마암면 장산마을과 농촌사랑 1사 1촌 자매결연을 하고 현재까지 지속적인 교류를 펼치고 있다. 자매결연 당시 마을회관에 50만원 상당의 TV를 기증하였고 10월에는 이 마을의 친환경으로 재배한 메주콩과 메주를 통영지사 직원은 물론 전국 지사 직원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사내게시판의 알뜰시장에 올려 상당한 판매량을 기록했다. 이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공단 직원분이 마을에 직접 찾아와서 구매해 간 경우도 몇 번 있었는데, 이들 중 에는 다시 추가 주문한 경우도 있었다." 고 한다.

또한 봉사단은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자매결연 마을의 독거노인에게 정기적으로 쌀을 지원하고 있으며, 마을대표들과도 수시로 연락하며 자매결연체의 입장에서 최대한의 협조를 아끼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마을 특산물 직거래 및 장산숲 청소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농촌사랑을 이어 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통영지사 봉사단은 총렬여중 학생 4명에게 중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관 후원, 저소득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 정기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해사랑 _ 진주시사

주요활동

- 1사1촌 자매결연 농촌사랑 운동
- 저소득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저소득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 재해지역 긴급 구호 봉사



국민연금봉사단 _ 거창지사

주요활동

- 치매노인 수용시설 배식 봉사
- 저소득가정 도배·장판교체 봉사
- 저소득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



지리산처럼 푸르른 자매마을 사랑

진주시사 '해사랑' 봉사단은 2008년 7월에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의신마을과 1사 1촌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지속적인 교류를 하고 있다.

자매결연마을인 의신마을은 지리산 산골에 위치하여 야생녹차와 밤이 주 수입원이다. 직원들은 수시로 특산물인 녹차, 밤, 꿀, 고로쇠액 등을 구입하여 농가소득에 도움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단 게시판에 특산물 홍보 광고를 게시하여 많은 사람이 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농번기에는 의신마을의 일손을 돕기 위해 하동농협과 연계하여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야생녹차 잎 따기, 하반기에는 밤 줍기와 밤 선별 작업으로 일손을 계속 돕고 있다.

특히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자매결연마을의 고등학생 1명에게 매 분기 1회 장학금을 지원하여 마을 주민들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해사랑은 수해지역복구 자원봉사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주민들과 정을 나누고 있으며, 다 함께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도배, 장판교체로 따뜻한 정을 나눕니다.

거창지사 '국민연금봉사단'은 2009년 상반기부터 「거창군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하여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펼쳤다. 지난해까지 봉사하였던 「참사랑 노인 의 집」이 폐쇄되어 새로운 봉사처로 치매노인 수용시설인 「사랑의 쉼터」를 추천받았다. 매월 4주차 목요일에 시설을 방문하여 식사보조 및 수발 등 봉사활동을 펼친다.

또한, 봉사단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천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2009년 5월부터 도배와 장판교체를 해드리고 있다. 봉사단원 대부분은 경험이 없지만 따뜻한 정을 나누겠다는 마음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가정에 처음으로 도배 봉사를 한 날, 어르신께서는 눈시울을 적시며 고마움을 표시했고, 9월 장애인부부 가정에서는 아침부터 오후까지 방 3개와 거실까지 도배하고 장판을 교체했는데 매우 힘든 일임에도 참가한 직원들이 전혀 불평 없이 즐겁게 봉사를 마쳤다. 이러한 저소득 가정 도배·장판교체 봉사는 서경신문, 경서신문, 거창군민신문 등에 보도되기도 했다.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 직원들이 매월 월급에서 십시일반 기부하여 마련하는 사회공헌후원금과 역시 직원들이 기부한 출장비의 일부로 마련하고 있다. 거창지사 봉사단원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 참여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

주요활동

- 저소득 연금수급자 후원 및 봉사활동
- 저소득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



주요활동

- 무료 급식 봉사 활동
- 독거 노인 후원
- 저소득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수급자에게 용기를 자녀에게 희망을!

양산지사 봉사단 '양산대들보'는 관내 유족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연금이의 꿈, 가족 산행' 행사를 실시하였다.

양산지사는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정신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족연금 수급자 간에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의지하며 홀로 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온라인 카페를 개설하였다. 이 카페 회원들 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자녀들에게 가족애를 심어주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가족 산행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함께 산행을 한 수급자는 "남편이 사망한 뒤에 애들을 데리고 한 번도 나들이를 못했는데 12년 만에 나왔다."며 봉사단에 고마움을 표시하여 많은 보람을 느꼈다.

그리고 양산대들보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저소득 수급자 자녀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하계방학을 이용하여 무료 영어과외를 2년째 실시하고 있다. 2008년에는 과외를 받던 중학생이 고등학교 전액 장학금을 받는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학생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아울러 봉사단은 이들 어려운 수급자를 위해 2008년도에만 330만원의 학자금을 자녀들에게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예정이며, 수급자가 이삿짐 나르기, 도배 등을 요청하면 기꺼이 봉사에 나서는 등 각별한 사랑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섬김과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사람들

"한 박스 더 뜯어야 될 것 같은데..."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지 지난 주보다 더 많이 오신 것 같지 않아요?"

"이 떡은 국민연금에서 주는 떡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어느 수요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사발면 봉지를 뜯고 스프를 부어 다시 박스에 담으면서 인근 교회 자원봉사자들과 웃으면서 행복을 나누는 부산콜센터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부산콜센터 봉사단 '더불어 사는 사람들'은 2005년 9월부터 매주 수요일 인근 「서문교회」에서 주관하는 무료급식 행사에 전 봉사단원이 윤번제로 참여하면서 노력봉사를 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모은 성금도 명절 등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저소득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이나 독거노인을 방문하여 생활필수품을 지원하고 청소, 말벗 되어 드리기 등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라는 봉사단명에 조금이라도 더 다가가기 위해 오늘도 또 다른 희망을 찾아가고 있다.